

오직 20분만 모십니다

벤츠코리아, 10월 온라인 스페셜모델 'C 300 4MATIC AMG 라인' 한정 판매

소달라이트 블루·폴라 화이트 2종 감각적인 내외장 컬러·편의성 강화 국내 럭셔리 중형 세단 독보적 입지 10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등 혜택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달 온라인 스페셜모델로 'C 300 4MATIC AMG 라인'을 20대 한정 출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창립 20주년 온라인 스페셜 10월 모델로 감각적인 내·외장 컬러와 더욱 강화된 편의성을 갖춘 '메르세데스-벤츠 C 300 4매틱 AMG 라인 온라인 스페셜'을 20대 한정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3월 국내 공식 출시된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6세대 완전변경 모델은 넉넉한 실내 공간과 S-클래스를 계승한 외관 디자인 및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디지털 라이트 등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첨단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국내 럭셔리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는 모델로 평가를 받는다.

이번 온라인 스페셜은 그 중 메르세데스-벤츠 C 300 4매틱 AMG 라인의 한정판 모델이다. 고급스러운 내·외장 색상 조합, 향상된 편의사양 등을 통해 특별함을 더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달 스페셜 모델은 '폴라 화이트(Polar White



메르세데스-벤츠 C 300 4MATIC AMG 라인 온라인 스페셜 소달라이트 블루(왼쪽)와 폴라 화이트.



(벤츠코리아 제공)

)와 '소달라이트 블루(Sodalite Blue)' 등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우선 15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폴라 화이트 색상 모델은 우아한 세련미를 담았다. 네바 그레이 및 블랙 컬러가 적용된 인테리어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한 게 특징이다.

5대 한정 판매하는 소달라이트 블루 색상 모델에는 외장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시에나 브라운 및 블랙의 투톤 컬러 인테리어가 적용됐다.

이번 온라인 스페셜 모델에는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먼저, 15개 고

성능 스피커와 710W의 출력, 각 좌석에 맞게 사운드를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고품질의 음향을 제공하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기본 적용된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는 앞좌석의 온도와 습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10월 온라인 스페셜 모델 구매 고객은 차량 구매 시 더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차량 구매를 확정된 고객에게 100만원 상당의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숙박권을 제공, 차량과 함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C 300 4매틱 AMG 라인 모델에는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을 겸비한 디자인 요소,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외관은 C-클래스 특유의 감각적인 비율에 삼각별 패턴의 다이아몬드 그릴, AMG 전용 프론트 에이프런 등의 디자인 요소를 더한 AMG 라인 외장 패키지가 적용됐다.

또 실내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휠베이스가 15mm 늘어나 더욱 넉넉해졌다. 여기에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돼 지능

적이고 안전한 주행 환경이 완성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C-클래스는 국내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와 인기를 얻으며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동급 최고의 세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번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기존 C-클래스의 장점과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색상의 조합, 국내 고객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편의사양이 적용돼 한층 향상된 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 선정

온실가스 저감·오염물질 최소화 등 친환경 자동차 공장 자리매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023년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23일 GGM에 따르면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제조 공장을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자원·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친환경 저탄소형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 이내로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GGM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저감과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 이 중 6가지 과제를 선정해 친환경 자동차 공장 만들기를 추진해왔다.

이번 한국환경공단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친환경 자동차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게 GGM의 자평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GGM은 11월 말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효율 터보 냉동시스템, 급배기 인버터 시설, 프리쿨링 열교환 시설 등과 같은 고효율화·친환경 시설을 구축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유

증기 회수 시설과 폐수 재활용 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수질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권 GGM 생산본부장은 "이번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 대상 기업 선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을 실천해 ESG 경영을 위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고객사와 함께 탄소 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전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중동 지역 내 첫 생산 거점 '시동'

사우디 국부펀드와 조립 합작공장 건설 협약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동차 조립 합작공장을 건설하며 중동 지역 내 첫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CKD(반제품조립-Complete Knock Down)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야시드 오스만 알루마이안 PIF 총재, 야지드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와 PIF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짓는다.

합작공장은 2024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예정이다.

현대차와 PIF는 합작공장 건설에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며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 공장이 들어서는 KAEC는 사우디아라비아 서

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로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Jeddah)로부터 약 100km 거리에 있다. 최근 전기차 업계의 투자가 잇따르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입주하는 등 중동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키운다는 목표로 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합작공장에 고도의 자동화 공정 및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의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의 사우디아라비아 합작공장은 전기차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 기술에 대한 현대차와 PIF의 협력이 혁신과 환경친화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19년 동행' 나달에 EV9 전달

유럽 현지 이동수단 활용

2025년까지 파트너십 연장

기아가 플래그십 전동화 SUV '기아 EV9'의 유럽 출시를 기념하며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이자 브랜드 글로벌 홍보대사인 라파엘 나달(Rafael Nadal)에게 EV9을 전달하는 현지 행사를 가졌다.

기아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아 관계자와 해외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고 라파엘 나달에게 기아의 두 번째 전용전기차인 EV9의 GT 라인 모델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라파엘 나달은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2004년부터 기아와 공식 후원 파트너십을 맺어 왔다. 올해 19년째 동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5년까지 파트너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기아는 라파엘 나달에게 2021년 10월 첫 전용전기차인 EV6 GT 라인을 제공한 데 이어 최근 현지 출시된 대형 전기 SUV EV9을 추가로 전달했다. 라파엘 나달은 EV6에 더해 EV9을 유럽 현지 등에서 적극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아는 유럽 내 전동화 전환의 핵심 차종이자 글로벌 대형 EV 시장을 개척하며 전기차의 새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EV9과 테니스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인 '테니스의 아이콘' 라파엘 나달의 공통점에서 착안해 이번 전달식을 '더 아이콘(#TheIcon)'이라는 이름의 콘셉트로 꾸몄다.

류창승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전무는 "테니스 코트 위의 움직임이 통해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는 라파엘 나달과 19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며 "코트 위의 아이콘 라파엘 나달에게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인 EV9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라파엘 나달이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서 기아 EV9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제공)

라고 말했다.

라파엘 나달은 "기아와의 지난 19년의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오늘 기아 EV9과 더 아이콘 코트를 통해 한 번 더 상상을 현

실로 구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EV9과 기아와 함께 하는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럭셔리 SUV '그레칼레' 특별 프로모션

60개월 1%대 초저금리 할부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그레칼레' '사전'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마세라티의 새로운 SUV 모델 '그레칼레' 신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물가 시대에 고객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그레칼레 모델을 60개월 운영 기준(보증금 50%)으로 1%대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초저

금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초저금리 프로그램 이용 고객은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레칼레 프리빌리지 프로그램'(Grecale Privilege Program)을 통해 기본 점급 서비스뿐 아니라 지정 소모품 평생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 소모품은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을 포함한 5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해당 항목에 대한 평생 교환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7개 마세라티 전시장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